

가정, 학교, 직장 상황에서 청자의 지위와 유대감에 따른 경어법 형식 사용의 차이*

: 일반화선형혼합모형을 사용한 담화완성과제 응답 분석

곽자랑·권소영·이동훈*

(부산대학교 박사과정·부산대학교 박사과정·부산대학교 부교수)

Abstract

Kwak, Jarang, Kwon, Soyoung, & Lee, Donghoon. 2019. "Differences in the Use of Honorific Styles According to Social Status and Solidarity of the Listener in the Family, School, and Workplace: Analysis of Responses from Discourse Completion Test Using Generalized Linear Mixed Model".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27(3). 35-6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social factors on the use of honorific language by discourse completion test. Participants complete a short discourse by filling in their responses in conversations that may occur in families, schools, and workplaces where the social status and solidarity of the listener is predetermined. Honorific styles of sentence endings of their responses are analyzed by the generalized linear mixed model. The results show that social status and solidarity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in the use of honorific styles, but their effects are dependent on the discourse situation. The ratio of using honorific styles gradually increases as the formality of situation increases (i.e., family < school < workplace). Interestingly, when the solidarity is low at the workplace, the ratio of using honorific styles is consistently high regardless of the social status of the listener. These results show that the use of Korean honorific styles is pragmatically changing according to the discourse situation.

Keywords: addressee honorifics, social factors, discourse completion test, generalized linear mixed models

※ 이 논문은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4S1A5A8012926).

* 제1저자: 곽자랑, 교신저자: 이동훈

1. 머리말

경어법은 다른 사람을 높여 대우하기 위한 언어 형식들의 사용 방식이다(한국사회언어학회 2012). 특히 한국어는 높임 기능을 가진 언어 형식들이 문법 형태로 체계화되어 있어서 ‘दै, 어르신’과 같은 높임 어휘를 비롯하여, 선어말어미 ‘-시-’와 종결어미 ‘-십시오’ 등의 문법 형태소로써 대화 상대방을 높일 수 있다. 주로 이러한 언어 형식은 윗사람인 상대방을 높이고, 동시에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높이지 않으면서 확인되는 차별적 지위 관계를 반영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왔다. 하지만 최근 사회 구조와 사용자들의 의식 변화에 따라 경어법을 사용하는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최근 국립국어원(2015)의 경어 의식 조사에 따르면, 부모나 직장 상사에게 말할 때와 같이 손윗사람을 높이는 경어 사용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나, 대화 장면의 공적/사적 성격에 따라 높임 형식 사용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사석에서 친한 직장 상사에게 말할 때에 경어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37.3%에 불과하였으며, 이는 근무 중 상사에게 말할 때(95.4%)와 큰 차이를 나타낸다. 상대방에 대한 대우 정도를 결정할 때 화·청자 간의 상대적 지위 관계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둘 사이의 심리적 거리감, 대화 상황의 격식성 등이 두루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경어법 사용과 관련된 사회적 요인을 탐색하고, 적용의 우선순위를 살펴본 기존 연구들은 힘(power)과 거리(distance) 요인이 대화 참여자의 경어법 형식 선택과 대우 수준 결정에 핵심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보았다(이정복 2011). 나이차, 지위차와 같은 화자와 청자 사이의 힘 요인과 친밀감(intimacy), 유대감(solidarity) 등의 거리 요인이 화자의 호칭어 선택이나 청자 경어법 말 단계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본 것이다(양명희·김려연 2013). 이외에도 이러한 화·청자의 상호관계적 특성뿐만 아니라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 상황 등 대화 환경과 공적/사적 대화와 같은 심리적 배경 등이 영향력을 가지며, 동시에 다수의 요인들이 함께 작용하기도 한다(이정복 2012; 허상희 2010).

하지만 동시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체계적으로 분리해 해석해내거나 요인들의 상호작용 효과를 통계적으로 검토하는 시도는 아직까지 소수에 불과하다(예: 박지순 2014).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일어나는 담화 사례들을 관찰, 해석함으로써 관심 요인에 의한 경어법 사용의 특징들을 논하였다(예: 허상희 2010). 이처럼 각각의 단편 담화 사례들을 기술적으로(descriptive) 분석하는 경우, 실생활 예시들을 바탕으로 요인의 작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개별 요인의 효과성을 양적으로(quantitative) 측정, 평가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인 비중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힘들다. 무엇보다 다수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내는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평가는 정량적인 수치로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통계적인 접근을 통한 보완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담화완성과제(discourse completion test)를 실시하고, 그 응답을 통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경어법 사용에 미치는 사회적 요인들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과제 문항 제작 시, 담화상황의 격식성을 고려하여 가정, 학교, 그리고 직장 상황을 구분하였으며, 담화를 이루는 상대방과의 지위관계와 유대감 정도를 시나리오 상에 처치하였다. 최종적으로 경어법 사용의 핵심적 요인인 화·청자 간의 힘과 거리에 따른 효과를 각 상황별로 알아보려고 하였으며, 이외에도 성별과 같은 개인적 특성을 조사하여 통계 모형에 함께 반영함으로써, 경어법 사용 요인들의 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을 실시하였다.

2. 선행연구 및 연구목적

2.1. 상황에 따른 경어법 사용 요인들의 상호작용

경어법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형식을 취하여 대상 인물을 어느 정도로 대우할 것인지 결정하는 데 관여하는 요인을 경어법 사용 요인이라고

한다(한국사회언어학회 2012). 대표적으로 힘과 거리 요인을 들 수 있으며, 주로 이 같은 참여자 간의 대인관계적 특성에 따라 경어법 형식을 선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허상희(2010)는 실생활 대화 상황을 반영하는 드라마 대본 분석을 통해 가정과 직장 구성원들 사이에서 위 두 요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살펴보았다.

- (1) 백호(아들): 아니 여긴 어떤 일이야. 누가 연락했어?
 동지(어머니): (와락 안으며) 백호야! 괜찮아? 어?
 백호: (아픈지) 아아. 엄마 살살 껴안아. 아퍼.
 동지: 미안해. 백호야 미안해. 너 오늘 잘못되면 엄마도 죽었어.
 백호: (멋쩍은) 엄마 왜이래. (미우나 고우나, 17회) (허상희 2010: 130)

(1)에서 드러나는 모자지간의 대화를 살펴보면, 서로 청자 경어법 형식 해체로써 일관하고 있다. 어머니와 아들은 나이와 가족지위 측면에서 수직적인 관계에 위치해 있으며, 이러한 힘 요인을 고려하였을 때에 아들은 높임 경어법 형식으로써 어머니를 대우할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와의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강화된 거리 요인에 의해 자연스럽게 상호 안높임 형식을 사용하여 대화를 주고받고 있다.

반면 엄격한 위계관계가 존재하는 직장 상사와의 대화에서는 부하직원이 각듯이 높임 형식을 사용하여 청자를 대우하며(허상희 2010: 103), 호칭어 ‘사장님’, 이주높임의 하십시오체를 사용하여 힘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상사를 높일 수 있다. 먼 거리감을 바탕으로 지위차에 의한 힘 요인 작용이 크게 강화되어 상대방을 높이는 비대칭적 용법¹⁾이 자연스러운 경어법 사용으로 여겨진다.

대화 참여자들의 비대칭적 경어법 사용을 일으키는 힘 요인과 이를 약화시키고 대칭적인 용법으로 작용하는 거리 요인의 상호작용에 대해 이익섭

1) 본고에서는 청자 경어법 사용에서 화·청자가 상호 동등한 수준의 높임 형식 또는 안높임 형식을 사용하는 경우를 대칭적 용법으로 정의하고, 예를 들어, 화·청자 가운데 한 사람은 높임 형식을, 다른 이는 안높임 형식을 사용하는 경우와 같이 대우 수준에서 서로 차이나는 경우를 비대칭적 용법이라 하였다.

(2000)은 일차적으로 화자는 서열, 나이와 같은 힘의 관계를 바탕으로 상대를 대우하며, 거리 관계에 따라 대우 수준을 추가적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보였다.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은 대상에게는 안높임말을 사용하고, 높은 경우에는 높임말로써 대우하는 것이 한국어 사용에서 관례이지만, 지위 차이가 나더라도 친밀한 관계에서는 (1)에서와 같이 상호 대칭적인 경어법 사용이 가능한 것이다. 이와 같은 높임 수준의 조절은 구체적으로 호칭어의 사용(예: 박은하 2010), 문장 종결어미의 변화(예: 유송영 1994), 어휘의 구분(예: 이정복 2007) 등을 통해 드러난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요인들의 상호작용에서 언제나 하나의 요인이 일관되게 우선권을 가지고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화 상황이나 언어 사용 맥락에 따라 두 요인의 상대적 적용 강도와 순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이정복 2012). 경어법 사용 요인에는 참여자 요인뿐만 아니라 상황 요인이 있으며, 적용 순서상 우선하는 상황 요인의 특성에 따라 힘과 거리 요인의 상호작용과 경어법 쓰임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대화의 장소 및 분위기를 뜻하는 상황 요인은 공적 상황과 사적 상황으로 나뉘며, 시공간의 물리적 환경을 포함하는 상황적 요소(예: 가정, 직장)와 참여자의 역할 및 심리적 관계(예: 부-자, 상사-부하)에 따라 발화장면의 성격이 결정된다(신인환 2017).²⁾ 대체로 사적 상황에서는 공적 상황에 있을 때보다 호칭어, 높임어휘 등의 대우가 낮아지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가정에서는 상호 친밀감을 바탕으로 해체 또는 해라체의 안높임말을 교환하던 부녀사이의 대화가 공적인 모임이나 장소에서는 비대칭적 경어법 사용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일상생활에서 관찰할 수 있다. 반대로 평소 나이나 직급 등에 의해 비대칭적인 방식으로 경어법을 사용하는 사이라도 회의, 토론과 같은 공적 담화 상황에서는 지위차를 떠나 상호 높임말로써 대등하게 높여주기도 한다(예: 이정복 2012). 상황의 공식성과 격식성에 따라 우선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의 순서와 상대적 강도는 달라질 수 있으며, 대개 담화

2) 신인환(2017: 219)은 발화장면의 공식성과 격식성을 정의하기 위해서, 각 특성을 이루는 구성요소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의 공적 성격이 짙어질수록 대칭적 높임 형식 사용이 더 나타난다.

공손표현 사용에 미치는 힘, 거리, 상황 요인의 상호 영향력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며(Brown & Levinson 1987; 곽자랑 외 2018), 특히 한국어 경어법과 관련해서는 실제 쓰임 사례를 바탕으로 한 질적인 분석이 수행되면서 요인들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을 도출하였다(이정복 2011; 허상희 2010). 주로 대화 참여자들의 역학 관계를 분석하고, 대화가 일어나는 물리적 환경과 심리적 배경을 상술함으로써 요인의 작용에 의한 경어법 사용의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술 및 설명적 방식의 귀납적 연구방법은 이론 형성 초기 단계에는 유용하나, 이론의 일반화와 보편적 검증을 위해서는 객관적 자료 수집과 통계적 분석을 통해 가설 검증이 뒷받침되는 연역적 접근이 추가로 필요하다. 다음 절에서는 설문 조사, 담화완성과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어 경어법 사용 실태에 대한 정량적이고 통계적 분석을 시도한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2.2. 경어법 사용 요인들의 통계적 효과 분석

경어법 사용에 미치는 요인들의 효과를 좀 더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보다 체계적인 형식의 자료 수집방법을 선택하고 이에 알맞은 통계 분석을 적용할 수 있다. 기존의 양적 연구들이 활용한 자료 수집방법에는 대표적으로 설문조사 형식의 담화완성과제가 있으며, 이는 사전에 경어법 요인의 특성을 반영해서 문항을 제작한 뒤, 과제 응답 가운데서 참가자들이 사용한 경어법 형식의 빈도를 분석하는 절차로 수행된다. 예를 들어, 양명희와 김려연(2013)은 한국 대학생과 중국 유학생들의 한국어 경어법 사용 실태를 조사하였는데, 힘[±선후배]과 거리[±친소] 관계에 의해 설정된 네 가지 청자 조건에 따라서 청자 경어법 종결어미 사용의 빈도 분포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한국어 모어 화자는 친하지 않은 선후배 사이에서 상호 높임말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이를 두고 화자의 경어법 결정에 힘보다 친소의 영향이 더 크게 미친 결과로 해석하였다.

즉, 특정 조건에서의 빈도수 증감을 파악하여, 이를 사회적 요인들의 구체적 인 상호작용 방식과 관련지어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경어법 형식의 발생 빈도를 단순 기록하고 이를 요인의 작용과 관련지어 쓰임을 논하는 방식에서 나아가서, 통계적 가설 검정을 통하여 집단과 사회적 요인에 따른 용법 차이를 체계적으로 밝히려는 시도가 함께 이루어졌다. 관찰한 경어법 사용 빈도의 증감이 단순히 통계적 우연에 의한 차이가 아니라 얼마나 유의한 값의 변화인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예컨대, 안의진·이철우·정휘만(2015)은 일상생활에서 사회적 친소 관계에 따라 격식체(예: 하십시오체) 또는 비격식체(예: 해요체)를 달리 사용하는 현상에 주목하여, 소비자를 설득하는 TV광고 상황에서는 어떤 요인들에 의해 선별적 사용이 나타나는지 관심을 가졌다.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광고유형(내레이션/드라마), 광고연도(예: 1980년대) 등의 요인에 따라서 격식체와 비격식체 사용빈도의 차이가 유의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이에 대한 가설 검정을 실시하였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 광고연도에 따른 통계적 차이는 없었으나, 내레이션과 드라마 발화맥락을 따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드라마 발화의 경우에는 광고연도의 효과가 유의하였다.

최근에는 영화나 드라마 대본, 혹은 카카오톡과 같은 온라인 대화 등 준구어 자료에 대해 로지스틱 회귀 분석, 다중 회귀분석 등 고급 통계학적 기법을 사용하여 경어법 사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수의 언어 내외적 요인들에 대한 분석이 시도되고 있다(강현석 2011; 강현석·김민지 2018; 박지순 2014). 예를 들어, 강현석(2011)은 영화와 드라마 대본의 대화 중 ‘하십시오체’와 ‘해요체’의 종결어미로 종결된 문장들을 자료로 삼아 두 높임 형식의 변이에 미치는 여러 요인들의 영향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화·청자의 위계관계와 친밀 정도, 화자의 연령대 등 설정한 모든 독립변인들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가운데 특히 화자의 성별, 발화 장면의 공식성, 발화문의 문형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조사되었다. 강현석과 김민지(2018)는 최근 카카오톡 대화 자료에 대해 다중회귀분석을 시도하여, 강현석(2018)의 결과를 다시 한 번 확인함으로써, 통신 언어 상에서도 경어법 사용 요인들의 효과가 나타남을 밝혔다.

박지순(2014)은 한국어 교육에서 상대 높임법 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화 시나리오로 이루어진 준구어 말뭉치를 대상으로 카이제곱 검정 및 일반화 로짓 모형 검정과 같은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장소 유형, 화자의 성별, 연령 등 다양한 언어 내외적 변인들이 상대높임법의 화제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회귀분석을 기초로 하는 통계 분석방법들은 종속변인과 설명변인들 사이의 상관관계에 기초하여 설명변인들의 효과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종속변인에 미치는 설명변인들의 효과를 통계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이론적으로 중요한 변인을 실험적으로 직접 처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인들 사이의 인과적 관계(causal relationship)를 확인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Darlington 1968). 또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영화나 드라마 대본 혹은 온라인 상 대화 자료와 같은 준구어 자료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그 결과를 실제 언어 사용을 그대로 반영하는 결과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어법 사용의 주된 요인인 힘과 거리, 상황 세 가지 요인을 문항구성에 처치하여 담화완성과제를 실시하고, 추가로 경어법 사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화자의 성별을 함께 조사하였다. 최종적으로 각 담화 상황마다 사회적 요인의 효과를 설명하기 위한 통계모형을 수립하고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2.3. 일반화선형혼합모형(Generalized Linear Mixed Models)

일반화선형혼합모형(GLMM)은 yes/no 응답처럼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응답 범주로 분류되어, 자료의 분포형태가 이항분포 혹은 포아송 분포를 따는 범주형 종속변인에 대해 다양한 예측변인들의 효과(즉, 고정효과와 임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고급통계기법이다(Breslow, Norman, & Clayton 1993). Jaeger(2008)는 심리언어학 분야에서 반응선택과제 자료나 정확률 자료가 범주형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율값으로 변환하여 변량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해왔던 관행에 대해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혼합로짓모형(이항분포를 따는 자료에 대한 GLMM의 특수한 형태)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Jaeger(2008)의 주장은 반복측정 변량분석(repeated measures ANOVA)과 같은 기존의 연속형 자료에 대한 분석이 참가자나 실험 항목들이 가지는 임의효과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고정효과와 임의효과를 함께 고려하는 선형혼합모형분석이 필요하다는 주장과도 맥락을 함께한다(Baayen, Davidson, & Bates 2008; Winter 2013). Jaeger(2008)와 Baayen et al.(2008)의 논문 이후, 심리언어학 분야에서는 혼합모형분석이 학계의 주류가 되어가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그 적용이 일반화되지 못하였고 최근 심리학 등 몇 가지 학문 분야에서 점차 활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예: 이효선·최원일 2019).

일반화선형혼합모형은 종속변인에 미치는 설명변인들의 영향을 고정효과(fixed effects)와 임의효과(random effects)로서 설명한다. 고정효과란 체계적인 방식으로 종속변인에 미치는 변인의 효과를 말하는데(Winter 2013), 대개 연구가설에서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는 관심 변인의 효과를 말한다. 예를 들어, 화·청자 간 상대적 지위차나 유대감 정도가 화자의 경어법 사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연구에서 이에 대한 변인들을 처치하고 종속 변인에서 그 효과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고정효과가 된다.

한편 임의효과는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표집하면서 발생한 효과이다(West, Welch, & Galecki 2007). 대표적인 임의변인으로 참가자 변인이 있다. 전체 한국어 화자들 가운데 일부 표본을 대상으로 과제를 실시하는 경우, 참가자들마다 경어법 형식을 사용하는 특징들이 제각기 다르다. 예를 들어, 모든 응답을 높임 형식으로 답하는 참가자가 있는가하면 높임 형식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참가자가 있을 수 있다. 사실상 특정 참가자가 어떻게 응답할지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새로운 참가자를 표집할 때마다 그 수행 결과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임의효과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경어법 사용 요인인 화·청자의 상대적 지위차, 유대감³⁾을 대표적인 고정변인으로 두고, 가정, 학교 및 직장의 담화에서 발

견되는 경어법 사용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정복(2006)은 구체적인 화자 집단을 설정하지 않고 청자 경어법 형식의 사용을 논하는 것이 그 결과를 어떠한 화자 집단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 형식의 담화 완성과제를 실시하고, 이들의 경어법 사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요인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⁴⁾ 따라서 최종 통계모형에는 고정변인인 청자의 상대적 지위(높은/낮은), 화·청자 간 유대감(고/저) 외에 화자의 성별(남/여)을 예측 변인으로 추가하였으며, 참가자 변인을 임의효과로 설정하여 일반화선형혼합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 분석의 결과가 담화상황(가정/학교/직장)에 따라 어떠한 다른 양상을 나타내는지 확인함으로써, 주요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에 도달하고자 하였다.

3. 연구방법

3.1. 참가자

부산 소재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총 198명이 담화완성과제에 참여하였다(남: 71명, 여: 127명, 평균 연령: 20.7세). 과제 응답 가운데 불성실하게 답한 응답, 무응답 결측치 등을 제외하여 최종 분석을 수행하였다.

3.2. 자극 및 절차

다양한 담화 상황(가정, 학교, 직장별 상황)에서 참가자가 실제 사용하는

-
- 3) 허상희(2010)는 유대감(solidarity)에 대해 정의하기를 “동일집단의 구성원으로서 갖는 감정으로, 가족·직장 등의 소속관계를 말한다.”고 하였다. 개념상 동질감 혹은 동료애 등으로도 대신할 수 있으며, 거리 요인에 포함되는 핵심요소로 보았다.
 - 4) 이정복(2006)은 구체적인 언어공동체나 화자 집단에 따라 경어법 사용 요인의 내용과 성격은 더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하였으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화자들에 또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별 요인을 함께 조사하여 분석모형에 추가하였다.

청자 경어법 형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담화완성과제를 실시하였다. 과제에서 참가자는 대화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지시문을 읽고, 이 같은 상황에서 자신이 화자라면 어떻게 말할지 직접 기술하도록 요구받았다. 이때 시나리오 상에 등장하는 청자는 응답자인 화자보다 나이, 학년, 또는 직급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으며([+지위]: 부모님, 선배, 직장상사), 낮을 수도 있었다([-지위]: 조카, 후배, 부하직원). 또한 화자의 경어 사용이 유대감에 따라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청자와의 유대관계를 구분하여 응답을 받았다. 단 비교적 높은 수준의 친밀감을 유지하는 가족공동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정 상황에서의 화·청자 간 유대 정도는 구분하지 않았다(〈표 1〉 참고).

〈표 1〉 담화완성과제의 내용과 대화 상황 예시

대화 상황	청자 지위	청자와의 유대감	문항 수	대화 상황의 예시
가정	[+지위]	[+유대감]	3	당신의 <u>아버지</u> 에게 “ <u>집에 언제 도착하는지</u> ” 물을 때는 어떻게 말합니까?
	[-지위]	[+유대감]	3	당신의 <u>조카</u> 에게 “ <u>학예회가 언제인지</u> ” 물을 때는 어떻게 말합니까?
학교	[+지위]	[+유대감]	3	당신의 <u>선후배</u> 에게 “ <u>시험을 잘 쳤는지</u> ” 물을 때는 어떻게 말합니까?
		[-유대감]	3	
	[-지위]	[+유대감]	3	
		[-유대감]	3	
직장	[+지위]	[+유대감]	3	당신의 <u>상사</u> 에게 “ <u>월말 보고서를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는지</u> ” 물을 때는 어떻게 말합니까?
		[-유대감]	3	
	[-지위]	[+유대감]	3	
		[-유대감]	3	

3.3. 자료 분석

각 담화 상황(가정, 학교, 직장)에서 청자의 상대적 지위와 화·청자 간의

유대감 고저에 따른 경어법 사용상 특징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참가자의 응답들을 국립국어원(2005)의 말 단계에 따라 여섯 가지의 경어체로 분류하였다. 그런 다음, 응답의 높임 여부를 중심으로 하십시오체, 해요체, 하오체는 높임 형식으로, 하게체, 해체, 해라체는 안높임 형식으로 다시 분류하였다(분류 예시는 <표 2> 참고). 이때, 참가자 응답 가운데 여섯 가지 종결어미로 분류되지 않는 응답(예: “재밌었음”과 같은 명사형 종결어미)과 중복응답, 무응답 결측치는 통계 분석에서 제외되었다(가정: 0.01%, 학교: 0.02%, 직장: 0.00%).

<표 2> 응답 분류 예시

청자 경어법 종결어미	응답 예시	높임 여부
하십시오체	언제 도착합니까?/ 다녀왔습니다.	높임
해요체	언제 도착해요?/ 다녀왔어요.	
하오체	언제 도착하오?/ 다녀왔소.	
하게체	언제 도착하는가?/ 다녀왔네.	안높임
해체	언제 도착해?/ 다녀왔어.	
해라체	언제 도착하니?/ 다녀왔다.	

가정, 학교, 직장의 담화 상황들에 대한 참가자들의 높임 및 안높임 응답 빈도는 일반화선형혼합모형으로 분석되었다. 통계분석은 R(R Core Team 2017)에서 제공되는 lme4 패키지의 glmer 함수를 사용하였다(version 1.1-19; Bates et al. 2015). 변인들의 다중공선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분산팽창지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s)는 car 패키지의 VIF 함수로 계산되었다(version 3.0-2; Fox and Weisberg 2011). 일반적으로 VIF 값이 10보다 클 때, 다중공선성이 높다고 판단한다(Hair et al. 2010).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모형의 변인들은 분산팽창지수 값이 10이하로 확인되었으며,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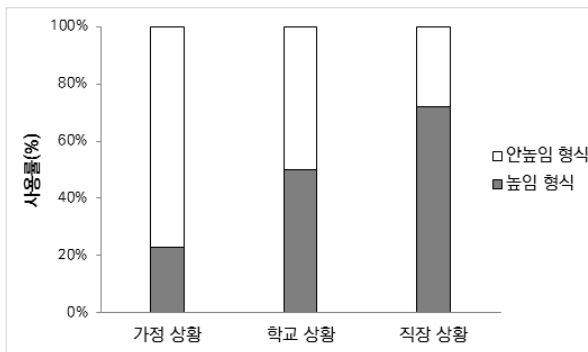
가정 상황에서 사용된 모형의 고정 변인은 청자 지위 변인(준거 조건: 청자가 낮은 지위), 성별 변인(준거 집단: 남성)이었고, 학교와 직장 상황에서 사용된 모형에는 가정 상황에서 사용된 고정 변인에 청자와의 유대감

변인(준거 조건: 유대감 저), 청자 지위와 청자와의 유대감의 상호작용 변인이 고정 변인으로 추가되었다. 각 담화 상황에서 사용된 모형의 무선 변인 구조는 최대화하여 분석한 뒤(Barr et al. 2013), 모형이 수렴하지 않으면 임의 변인의 구조를 단순화하여 모형이 수렴될 때까지 분석하였다. 이렇게 하여 설정한 임의 변인은 다음과 같다: 참가자 절편(가정 상황, 학교 상황), 참가자 절편과 청자와의 유대감에 대한 참가자 기울기(직장 상황).

4. 연구결과

4.1. 담화 상황에서 나타난 높임/안높임 형식의 사용 양상

청자 지위 변인과 청자와의 유대감 변인을 고려하기에 앞서, 각 상황에서 사용된 높임 형식과 안높임 형식 사용의 전반적인 양상을 살펴보았다. 각 담화 상황에서 사용된 높임/안높임 형식 사용의 비율을 나타낸 [그림 1]은 가정, 학교, 직장 상황으로 갈수록 높임 형식 사용이 증가함을 보여준다. 이는 대화 장면의 공적/사적 성격에 따라 경어 사용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고 보고한 국립국어원(2015)의 경어 의식 조사의 결과가 실제 경어법 사용에서도 나타남을 보여준다.



[그림 1] 담화상황에서 나타난 높임/안높임 형식의 사용률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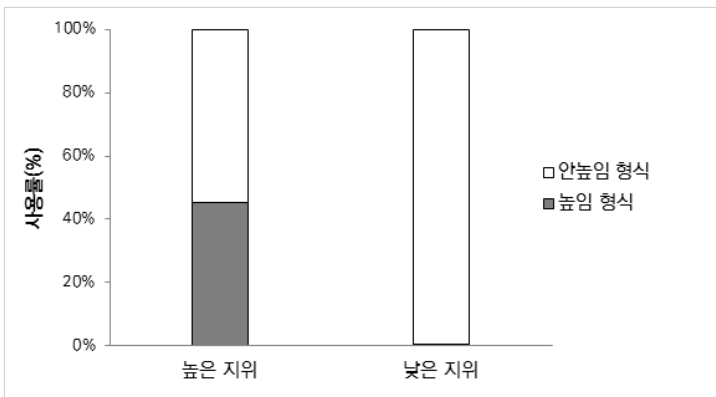
4.2. 가정 상황

가정 상황에서는 청자의 지위가 낮은 조건과 높은 조건 모두에서 높임보다는 안높임 형식의 사용 빈도가 높았다(〈표 3〉의 좌측). 하지만 두 조건에서 나타난 높임 형식의 사용 빈도를 비교했을 때, 낮은 지위 조건보다는 높은 지위 조건의 빈도가 높은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양상에 대한 일반화선형 혼합모형의 분석 결과, 지위($\alpha = 10.36, p < .001$), 성별($\alpha = -3.85, p < .001$)의 효과가 유의하였다(〈표 3〉의 우측). 청자 지위에 따른 높임 형식의 사용률을 살펴보면(〈그림 2〉), 낮은 지위보다 높은 지위에서 높임 형식의 사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보다 남성의 높임 형식 사용률이 높았다.

〈표 3〉 가정 상황: 청자의 지위에 따른 높임/안높임 형식의 사용 빈도(좌)와 일반화선형 혼합모형의 분석 결과(우)

가정	사용 빈도		일반화선형혼합모형 분석 결과			
	높임 형식	안높임 형식		<i>b</i>	<i>SE</i>	<i>z</i>
높은 지위	268	323	절편	-6.95	0.76	-9.11***
낮은 지위	3	588	성별	-2.44	0.63	-3.85***
			청자 지위	8.00	0.77	10.36***

참고: ***: $p < .001$, **: $p < .01$, *: $p < .05$



[그림 2] 가정상황: 청자 지위에 따른 높임/안높임 형식의 사용률

가족 지위 변인의 유의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손아랫사람은 물론 손윗사람에게도 안높임 형식을 주된 형식으로 사용한 점이 눈길을 끈다. 이는 아버지 혹은 어머니와 같이 혈연을 바탕으로 한 친밀한 사적 관계에서는 옛날과 달리 비대칭적 경어법 사용이 엄격히 적용되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비존대로 말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현상을 두고, 기존의 연구들은 핵가족제도의 확산이나 가정 내 수평적 관계의 정립 등의 사회구조적 이유로써 주로 설명해왔다(예: 홍민표 2011: 196~197). 대가족제도에서는 자녀가 조부모와의 동거 과정에서 자신의 부모가 손윗사람에게 깎듯이 경어법을 쓰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고 학습할 기회가 있었던 반면, 오늘날 핵가족 단위의 가정에서는 이러한 관찰 학습의 기회가 적다. 또한 사회 전반에서 확인되는 수직적 위계질서의 약화와 더불어 오늘날 가정에서는 자녀수 감소로 인해 부모-자식 간 심리적 거리가 크게 가까워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상호 수평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한 대칭적 용법이 보다 두드러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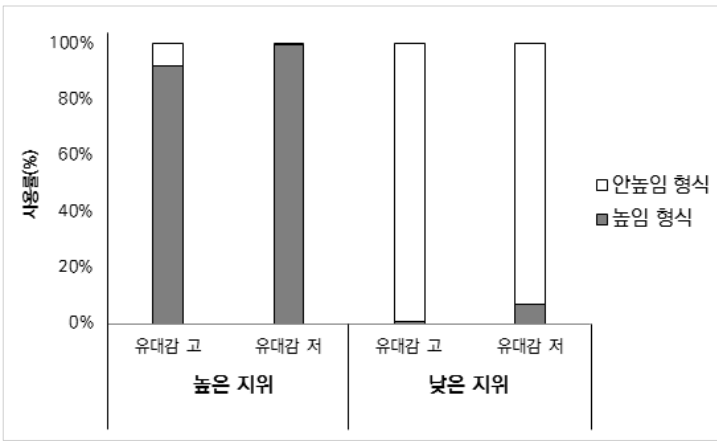
4.3. 학교 상황

학교 상황에서의 일반화선형혼합모형의 분석 결과, 청자 지위 변인과 청자와의 유대감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alpha = 0.64, p = .521$). 따라서 두 변인의 주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상호작용 효과를 제거한 모형을 다시 분석하였다(〈표 4〉의 우측). 그 결과, 청자 지위 변인($\alpha = 11.74, p < .001$)과 청자와의 유대감 변인($\alpha = -6.86, p < .001$) 각각의 효과가 유의하였다. 각 조건에서의 높임/안높임 형식 사용 비율을 살펴보면(〈그림 3〉), 높임 형식 사용률은 청자의 지위가 높거나 화자와 청자가 친밀하지 않을 때 높았다.

〈표 4〉 학교 상황: 청자의 지위와 화·청자 간 유대감 고저에 따른 높임/안높임 형식의 사용 빈도(좌)와 일반화선형혼합모형의 분석 결과(우)

학교		사용 빈도		일반화선형혼합모형 분석 결과			
		높임 형식	안높임 형식		<i>b</i>	<i>SE</i>	<i>z</i>
높은 지위	유대감 고	535	47	절편	-5.57	0.60	-9.31***
	유대감 저	583	3	성별	0.57	0.50	1.15
낮은 지위	유대감 고	3	573	청자 지위	14.05	1.20	11.74***
	유대감 저	39	545	청자와의 유대감	-4.10	0.60	-6.86***

참고: ***: $p < .001$, **: $p < .01$, *: $p < .05$



[그림 3] 학교상황: 청자 지위와 화·청자의 유대감 고저에 따른 높임/안높임 형식의 사용률

가정 상황과는 달리, 학교 상황에서는 높은 지위의 대상에게는 높임 형식을, 낮은 지위의 청자에게는 안높임 형식을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각각 95.7%, 96.3%). 서로 강한 유대감과 정서적 친밀감을 바탕으로 결속된 1차 집단과는 다르게, 부분적 이해관계에 따라 공식적으로 맺어진 2차 집단에서는 경어법 사용에 보다 신중을 기하며(이정복 1994),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힘 요인에 기반한 경어 사용이 특징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높은 지위의 청자라 할지라도 유대 정도가 높은 친밀한 대상인 경우

에는 안높임 형식을 사용하고, 반대로 지위가 낮더라도 낮은 유대 관계의 청자에게는 높임 형식을 사용하는 빈도 상 패턴이 관찰되었다(그림 3). 그러나 이러한 지위와 유대감 두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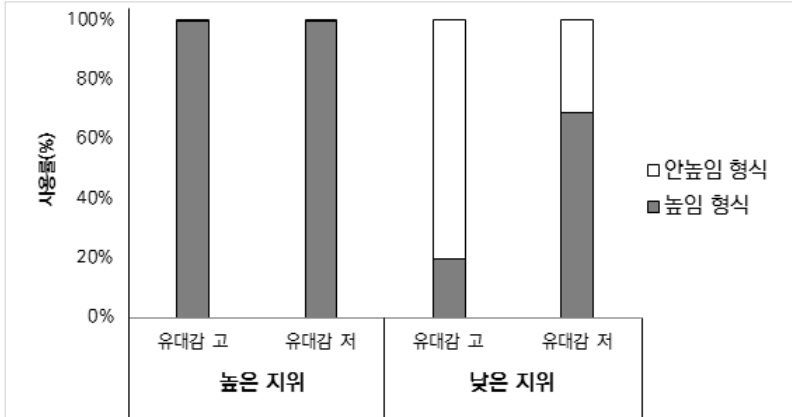
4.4. 직장 상황

직장 상황에서의 일반화선형혼합모형 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었다. 분석 결과, 청자 지위 변인과 청자와의 유대감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다($z = 2.64, p < .01$). Tukey 검정을 사용한 사후분석 결과, 화·청자 간 유대감의 효과는 청자의 지위가 높은 조건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지만($z = 0.10, p = 1.00$), 청자의 지위가 낮은 조건에서는 유의하였다($z = -11.62, p < .001$). 이에 대한 그래프를 살펴보면(그림 4), 청자의 지위가 높은 조건에서는 화·청자 간 유대 수준에 관계없이 높임 형식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었지만, 청자의 지위가 낮은 조건의 경우 화·청자의 유대감이 높을 때보다 낮을 때 높임 형식의 사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5> 직장 상황: 청자의 지위와 화·청자 간 유대감 고저에 따른 높임/안높임 형식의 사용 빈도(좌)와 일반화선형혼합모형의 분석 결과(우)

직장		사용 빈도		일반화선형혼합모형 분석 결과			
		높임 형식	안높임 형식		<i>b</i>	<i>SE</i>	<i>z</i>
높은 지위	유대감 고	591	2	절편	0.74	0.25	2.99**
	유대감 저	592	1	성별	0.64	0.31	2.07*
낮은 지위	유대감 고	116	474	청자 지위	6.33	1.03	6.15***
	유대감 저	408	183	청자와의 유대감	-3.63	0.31	-11.62***
				청자 지위 *청자와의 유대감	3.77	1.43	2.64**

참고: ***: $p < .001$, **: $p < .01$, *: $p < .05$



[그림 4] 직장상황: 청자 지위와 화·청자의 유대감 고저에 따른 높임/안높임 형식의 사용률

앞서 [그림 1]에서 확인하였던 것과 같이 상황의 공적 성격에 따라 높임 형식 사용이 전반적인 늘어나는 현상은, 직장 상황으로 갈수록 낮은 지위의 청자에 대한 높임이 점차 증가하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학교 상황과 비교하여 볼 때, 직장에서도 지위가 높은 청자에 대해선 대부분의 화자들은 높임 형식을 사용하였으며, 이때 유대감 수준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유대감 고 99.7%, 저 99.8%). 하지만 청자의 지위가 낮을 때는 청자 지위에 맞게 안높임 형식을 일괄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유대 관계에 따라 높임 형식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청자와 가까운 사이인 경우에는 안높임 형식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으나(80.6%), 비교적 먼 사이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를 지닌 청자라도 높임 형식을 사용하여 대우하는 경우가 보다 많았다(68.9%). 직장 상황과 같은 공적인 상황에서는 부하직원의 절대적인 지위와 체면을 고려해서 높임 형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회의, 토론과 같은 공적 담화 상황에선 지위고하를 떠나 상호 높임 말로써 대등하게 높여주기도 한다는 선행연구의 관찰과도 일치한다(예: 이정복 2012: 409~410).

4.5. 경어법 형식의 격식성

청자 경어법 사용에 미치는 요인의 상호작용을 높임/안높임의 두 단계의 형식상에서도 관찰할 수 있지만, 보다 세밀하게 공손 정도를 조절하는 각 형식의 쓰임을 고려하여, 담화 상황마다 화자가 사용하는 경어법 형식의 격식성을 추가적으로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국립국어원(2005)은 일상생활이나 개인적인 이야기가 오고가는 비격식적 상황에서 주로 사용되는 경어법 형식을 비격식체로 구분하고, 반면 공공장소나 직장 등의 공식적인 이야기 상황에서 상대를 높이거나 낮추기 위한 형식을 격식체로 정리하였다(표 6). 본 연구 자료를 응답의 높임여부 및 격식체에 따라 분류한 결과를 살펴보면(표 7), 사적 상황인 가정에서는 대부분 비격식체를 사용하여 청자를 대우하였는데, 가족 서열 상 윗사람인 부모님에게는 해요체나 해체를 사용하였으며(90.4%⁵⁾), 아랫사람에게는 주로 해체를 사용하였다(80.0%). 반면 학교에서 직장으로 담화 상황의 공식 성격이 짙어질수록 격식체인 하십시오체를 사용하는 비중이 늘어났다. 학번 상 윗사람인 선배에게는 하십시오체를 사용하여 대우하는 경우가 적었지만(8.7%), 회사 직급 상 윗사람인 상사에게는 격식체를 사용하여 높이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45.5%). 이때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청자와의 유대감 정도가 이러한 격식체 또는 비격식체의 선별적 사용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같은 선임자라도 청자가 유대 정도가 낮은 대상인 경우에는 격식체인 하십시오체를 사용하여 보다 공손하게 대우하였으며, 이 효과는 공식 성격이 강한 직장 상황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학교: 유대감 고 3.4%, 저 13.3%; 직장: 유대감 고 29.5%, 저 61.6%). 한편 낮은 지위의 청자에 대해서도 격식체 혹은 비격식체 사용을 통한 공손성 조절이 확인되었는데, 담화 상황의 공식 성격이 더해질수록 그리고 화자와 유대감이 적은 대상에 대해서 격식체인 해라체를 사용하기보다 비격식체인 해체나 해요체를 선호하는 특징을 보였다(학교: 유대감 고 71.0%, 저

5) 본문에서 제시되는 사용률(%)은 구체적인 담화 조건(예: 부모님에게 말할 때)에서 관찰되는 여섯 가지 경어 형식의 전체 빈도를 분모로 두고, 특정 형식의 사용 빈도(예: 해요체와 해체)를 분자로 두어 계산하였다.

79.6%; 직장: 유대감 고 88.8%, 저 88.8%). 이는 두루 낮춤과 두루 높임의 성격을 지니는 비격식체를 활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를 지니는 청자를 부드럽고 정중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청자에 대한 공손 대우는 높임 형식을 통해서도 드러나지만 격식체와 비격식체를 구분함으로써 실현이 되기도 하며, 이때에도 담화 상황의 공식성, 참여자들의 유대감과 같은 경어법 사용 요인들이 주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다.

〈표 6〉 국립국어원(2005: 222)의 청자 경어법 형식

높임등급		격식체	비격식체	높임등급
높임	아주높임	합쇼체	해요체	두루높임
	예사높임	하오체		
안높임	예사낮춤	하게체	해체	두루낮춤
	아주낮춤	해라체		

〈표 7〉 담화 조건별 격식체/비격식체 종결어미의 사용 빈도

		가정		학교				직장			
		높은 지위	낮은 지위	높은 지위		낮은 지위		높은 지위		낮은 지위	
				유대감 고	유대감 저	유대감 고	유대감 저	유대감 고	유대감 저	유대감 고	유대감 저
격식체	1	12	0	20	78	0	0	175	365	2	50
	2	1	0	0	0	0	0	0	0	0	0
	3	0	0	0	0	0	0	0	0	1	3
	4	44	115	4	0	167	119	0	0	63	13
	N	57	115	24	78	167	119	175	365	66	66
비격식체	5	255	3	515	405	3	39	416	227	114	358
	6	279	472	43	3	406	426	2	1	410	167
	N	534	475	558	508	409	465	418	228	524	525

1: 하십시오체, 2: 하오체, 3: 하게체, 4: 해라체, 5: 해요체, 6: 해체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자 경어법 사용에 미치는 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담화 상황별 힘과 거리 요인의 상호작용 효과를 중심으로 검증하였다. 지금까지 요인들의 상호작용 가능성을 제안한 여러 질적인 분석과 논의가 있어 왔지만, 이를 정량적인 형태로 수치화하고 여러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담화완성과제에서 참가자들이 사용한 (안)높임 종결어미 형식의 빈도를 종속변인으로 두어 일반화 선형혼합모형을 분석하였다. 화자의 성별의 영향을 통제하였을 때, 청자의 상대적 지위와 유대감 정보는 화자의 경어법 형식 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는데, 전반적으로 청자가 지위가 높거나 유대감이 낮은 대상인 경우에 높임 형식의 경어를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가정, 학교, 직장 순으로 담화 상황의 공적 성격이 더해질수록 높임 형식의 사용은 증가하였으며, 경어법 사용 양상 또한 크게 달랐다.

구체적으로 가정에서 확인되는 경어법 사용의 주요 특징으로는 청자의 지위가 낮은 경우뿐 아니라 높은 경우에도 안높임 형식을 사용한 빈도가 높은 점이다. 통계 분석 결과, 높임 경어 사용에 미치는 지위의 주효과가 관찰되었으나 이는 청자가 아랫사람인 조건과 비교하였을 때에 관찰되는 상대적인 효과이며, 절대적인 빈도 상으로는 청자가 윗사람인 경우에도 높임 형식보다 안높임 형식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반면 학교에서는 선·후배로 대표되는 위계관계에 따라 높임 형식을 차별적으로 사용하는 특징이 명확히 관찰되었다. 가정 상황과는 달리, 높은 지위의 대상에게는 높임 형식을, 낮은 지위의 청자에게는 안높임 형식을 구분하는 비대칭적 용법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지위의 효과 외에도 유대 정도가 적은 청자에게 높임 형식을 보다 사용하여 대우하는 유대감의 효과 또한 유의하였다. 한편 직장에서는 청자와의 상대적 지위관계와 유대감 정도가 함께 상호작용하여 화자의 높임 형식 선택에 보다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직장 내 지위가 높은 청자에 대해선 유대감 수준에 따른 차이 없이 대부분 높임 형식을 사용한 반면, 청자의 지위가 낮을 때는 유대관계에 따라 높임을 조절하였다. 즉

청자와 가까운 사이인 경우에는 안높임 형식을 사용하고, 비교적 먼 사이에서는 높임 형식을 사용하여 대우하는 경향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가정, 학교, 직장 순으로 공적인 담화 상황으로 갈수록 청자를 대우하기 위해 활용되는 높임 형식은 지위 조건마다 각기 다른 특징을 나타내었다. 가정에서는 과반에 미치지 못하던 윗사람에 대한 높임이 학교와 직장 상황으로 갈수록 큰 폭으로 증가하며, 반대로 낮은 지위의 청자에 대해선 그 지위에 맞게 안높임 형식을 사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직장 상황으로 갈수록 낮은 지위의 청자를 높임 형식으로써 대우하는 경향성이 나타난다. 즉, 사적인 담화상황에서는 윗사람에 대한 낮춤이 두드러지며, 공적 상황에서는 아랫사람에 대한 높임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상대적 지위차에 근거한 청자 경어법 사용은 한국 사회에서 관계적 성격을 지니지만, 담화 상황에 따라서 이러한 쓰임조차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기존에는 주로 질적으로 분석되어왔던 높임 현상들을 통계적인 분석과 체계적인 과제 수행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주요 사회적 요인의 작용을 양적인 값으로 측정하여 이해한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요인 간 상호작용을 수치화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한 부분에서 유의미성을 가진다. 청자에 대한 높임을 결정할 때 힘과 거리 관계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절한다는 설명은 그동안 경험적 사례들을 바탕으로 꾸준히 있어왔다. 하지만 언어를 사회적 현상이나 행위로 보기 위해선 이와 같은 사례 분석과 더불어서 가설을 검증하는 방식의 연역적 접근 또한 요구된다. 예컨대, 친한 학교 선배에게는 반말을 하고 안면이 없는 후배에게는 존대를 하는 현상은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례이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도 빈도상 유사한 패턴을 관찰할 수 있었지만(그림 3), 대학생들이 일반적으로 그러하다고 볼 수 있는지는 검증이 필요하며, 통계분석 결과 지위와 유대감 요인 사이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직장에서는 지위 상 아랫사람에 대한 높임이 유대관계에 따라 달리 조절되는 것을 관찰하였으며, 통계적 가설 검증 결과도 두 요인 사이의 상호작용을 지지하였다. 또한, 통계적인 접근을 취한 기존의 경어법 사용 연구들은 동시에 작용하는 여러 요인들의 개별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리해 그 비중을 비교하는 데 주로 목적이 있었

던 반면(예: 강현석 2011), 본 연구에서는 핵심 요인을 중심으로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는 최근 국립국어원(2015)에서 발표한 경어 의식 조사의 내용과는 다소 대조되는 측면을 지닌다. 예를 들어, 기존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정에서 자녀가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게 말할 때 높임말을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은 평균 96.75%에 달했으며, 본 연구에서 관찰한 높임 형식 사용률 45.3%와는 크게 대조된다. 이와 같은 두 연구 내용상의 차이는 경어 의식을 조사하는 선행연구와 담화완성과제를 통한 실제 응답 비율을 조사한 본 연구의 방법론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경어 의식 및 태도를 조사하는 경우, 경어법 사용에 기저하는 개인 사용자들의 의식과 내재화된 태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지만, 설문조사 시 응답자들이 의식적으로 가장 적당한 행동을 골라 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결과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홍민표 2002, 2004). 특히 윤리성이나 도덕성과 관련된 질문내용의 경우 이러한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부모님에게 경어를 사용해야하는지 묻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담화완성과제와 같이 응답자가 직접 산출해내는 실제 발화를 수집한다면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경어법의 용례를 보다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경어법 의식 조사 내용과는 다소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 대학생들의 경어법 사용에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의 상호작용 효과를 체계적으로 검증했다는 데에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화자들의 실제 경어법 사용을 다루고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학생 화자들이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직장에서의 대화를 가정하여 응답을 수집하였다는 점에서 다소 타당성이 부족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참가자의 직장경험 여부를 조사했을 때 29.8%만이 6개월 이상의 직장경험이 있다고 답했는데, 따라서 직장 상황에 대한 응답 분석 결과는 이러한 연구방법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오늘날 경어법 사용 현실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조사 대상자의 범위나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고에서 제시한 주요 요인 외에도 구체적인 언어공동체나 화자 집단에 따라 경어법 사용 요인의 내용과 성격은 더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이정복 2006),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의 경어법 사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장 배경, 출신, 경험과 같은 추가적인 요인의 적용 또한 고려될 수 있다.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로 맺어지는 오늘날의 언어공동체 특성을 고려할 때 이를 반영하는 언어행동과 경어법 사용 특성에 관한 연구는 시대적 필요성을 지니며, 보다 다양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검토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현석(2011), <해요체-합쇼체의 변이에 대한 계량사회언어학적 연구 -성별어적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언어학》 19(2), 1~22, 한국사회언어학회.
- 강현석·김민지(2018), <카카오톡 대화에서의 경어체 종결어미의 변이 양태에 대한 다중변인분석 연구>, 《사회언어학》 26(1), 1~30, 한국사회언어학회.
- 곽자랑·권소영·김해진·이동훈(2018), <요청 부담에 따른 공손표현의 화용적 효과 - 화자의 호감도 및 요청 수락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언어과학연구》 87, 1~28, 언어과학회.
- 국립국어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1. 체계 편》, 커뮤니케이션북스.
- 국립국어원(2015), 《2015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 국립국어원.
- 박은하(2010), <드라마에 나타난 호칭어 및 높임법 사용 양상 연구>, 《드라마 연구》 33, 151~182, 한국드라마학회.
- 박지순(2014), <한국어교육학: 한국어 상대높임법 실현의 영향 요인 연구>, 《새국어교육》 98, 289~324, 한국국어교육학회.
- 신인환(2017), <한국어 발화 장면의 공식성과 격식성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59, 189~228, 한민족문화학회.
- 안의진·이철우·정휘만(2015), <TV광고언어에서 격식체와 비격식체의 사용빈도>, 《한국광고홍보학보》 17(3), 232~260, 한국광고홍보학회.

- 양명희·김려연(2013), <한국 학생과 중국 유학생의 경어법 사용 비교·연구 -선후배 간 호칭, 인사말, 상대경어법을 중심으로->, 《사회언어학》 21(1), 129~152, 한국사회언어학회.
- 유송영(1994), <국어 청자 대우법에서의 힘과 유대 (1)>, 《국어학》 24, 291~317, 국어학회.
- 이익섭(2000), 《사회언어학》, 민음사.
- 이정복(1994), <제3자 경어법 사용에 나타난 참여자 효과 연구>, 《국어학》 24, 353~384, 국어학회.
- 이정복(2006), <국어 경어법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접근>, 《국어학》 47, 407~448, 국어학회.
- 이정복(2007), <“감사합니다”와 “고맙습니다”의 사회언어학적 분포>, 《사회언어학》 15(1), 151~173, 한국사회언어학회.
- 이정복(2011), 《한국어 경어법, 힘과 거리의 미학》, 소통.
- 이정복(2012), 《한국어 경어법의 기능과 사용 원리》, 소통.
- 이효선·최원일(2019), <문장 읽기 시 연령에 따른 예측성 효과: 안구운동 추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인지 및 생물》 31(1), 17~38, 한국심리학회.
- 한국사회언어학회(2012), 《사회언어학사전》, 소통.
- 허상희(2010), <한국어 공손표현의 화용론적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논문.
- 홍민표(2002), <한국인과 일본인의 경어의식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한국일어일문학회》 41(1), 193~212, 한국일어일문학회.
- 홍민표(2004), <사회언어학적 조사의 한계와 문제점>, 《일본어문학》 24, 143~176, 일본어문학회.
- 홍민표(2011), <한일 경어법의 대조사회언어학적 고찰: 양국 고교생의 경어사용실태를 토대로>, 《사회언어학》 19(1), 187~209, 한국사회언어학회.
- Baayen, R. H., Davidson, D. J., & Bates, D. M. (2008). “Mixed-Effects Modeling with Crossed Random Effects for Subjects and Items”.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59(4), 390~412.
- Barr, D. J., Levy, R., Scheepers, C., & Tily, H. J. (2013). “Random Effects Structure for Confirmatory Hypothesis Testing: Keep It Maximal”.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68(3), 255~278.

- Bates, D., Maechler, M., Bolker, B., & Walker, S. (2015). "Fitting Linear Mixed-Effects Models Using lme4". *Journal of Statistical Software* 67(1), 1~48.
- Breslow, N. E. & Clayton, D. G. (1993). "Approximate Inference in Generalized Linear Mixed Models".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88(421), 9~25.
- Brown, P. & Levinson, S. C. (1987).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arlington, R. B. (1968). "Multiple Regression in Psychological Research and Practice". *Psychological Bulletin* 69(3), 161~182.
- Fox, J. & Weisberg, S. (2011). *An R Companion to Applied Regression*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 Anderson, R. E. (2010). *Multivariate Data Analysis: A Global Perspective* (7th (Global Edition) ed.).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Prentice Hall.
- Holtgraves, T. & Yang, J. N. (1992). "Interpersonal Underpinnings of Request Strategies: General Principles and Differences Due to Culture and Gend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2), 246~256.
- Jaeger, T. F. (2008). "Categorical Data Analysis: Away from ANOVAs (transformation or not) and towards Logit Mixed Models".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59(4), 434~446.
- West, B. T., Welch, K. B., & Galecki, A. T. (2006). *Linear Mixed Models: A Practical Guide Using Statistical Software*. FL: Chapman & Hall/CRC.
- Winter, B. (2013). "Linear Models and Linear Mixed Effects Models in R with Linguistic Applications." Retrieved March 28, 2018, from <http://arxiv.org/pdf/1308.5499.pdf>.

곽자랑

kjrang@pusan.ac.kr

권소영

thdud3079@gmail.com

이동훈

dhlee@pusan.ac.kr

논문 접수일: 2019년 7월 31일

논문 심사일: 2019년 8월 11일~9월 4일

게재 확정일: 2019년 9월 5일